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들은 결혼한 지 일 년이 채 안된 신혼부부이다. 연애기간도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아내에게 들어본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다. 신혼재미가 좋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쉰다.

둘다 귀가시간이 밤 열시가 기본이었다. 집에 들어와 씻고 집안정리를 대충 끝내면 쓰러져 자기 바빠다.

결혼 이후 두 사람에게 닥친 당연과제는 신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내일 무사히 출근을 하는 일이었다.

자아지니 의례히 그냥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사실 이런 부부들이 한 두 커플이 아니다.



이런 날들이 하나 둘 쌓여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선 이들은 대부분 섹스를 하려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빨 것이 없다.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자. 샤워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저 '물로 대충 씻는다' 정도지만 이것도 막상 시작하면 머리로 감아야 하고, 비누칠도 해야 하고, 그러다 팔꿈치에서 때라도 나오면 때도 밀어야 하는 꽤 복잡한 과정이다.

섹스는 얼마간의 열정과 체력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게임에 시간·체력을 투자하자.

총 말려야 침대가 젖지 않는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낸 뒤에야 비로소 섹스를 시작할 수 있고, 끝낸 다음에도 또 샤워를 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미 하기 전부터 진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 공통점은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화도 제법 나눠야 한다. 이런 제반사항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섹스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섹스는 얼마간의 열정과 체력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구비되어야 할 최소한의 준비물을 꼽자면 콘돔과 티슈 정도?) 여기서 체력은 번갈고 뺏치는 체력이 아니라 이십여 분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력 정도면 그만이다.

결국 시간과 체력이 따르지 않아 섹스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시간과 체력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영 마음에 걸리면 침대 머리맡에 물티슈 한 통을 사 두기 바란다. 이것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로 서로의 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게임에 잠깐의 시간과 체력을 투자해 보기 바란다.

뉴스퀴즈

94. '피겨여왕'인 이 선수가 1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왕중왕' 자리에 오른 것으로, '피겨 여왕'에서 당당히 '피겨 여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김연아 ②아사다 마오 ③캐롤라인 장 ④키미 미야니사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12일 己丑)

- 36년생 하를 한번 우리러 보라. 48년생 생활이 나태해지니 부부간의 응징으로 應氣投合을 시도하라. 60년생 처녀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2년생 응서하며 살아라. 84년생 옛 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07, 08

검색절정 키워드

제 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된 검색어가 인터넷을 휩쓸었다.

이명박 당선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아방의 세월'과 '영웅시대'에서 이 당선자 역을 맡았던 탤런트 유인촌(56)씨, 유동근(51)씨 등도 검색어에 올랐고 투표할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가수 박진영·서윤정씨 부부, 배우 문근영(20)씨 등 연예인들도 관심을 끌었다.

20일 새벽 유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순 미인' 손예진 아찔한 '엉덩이 문신'

탤런트 황보라(24)씨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황씨가 경찰에서 "모임에서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네티즌들은 황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와인 한 잔 먹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느냐"며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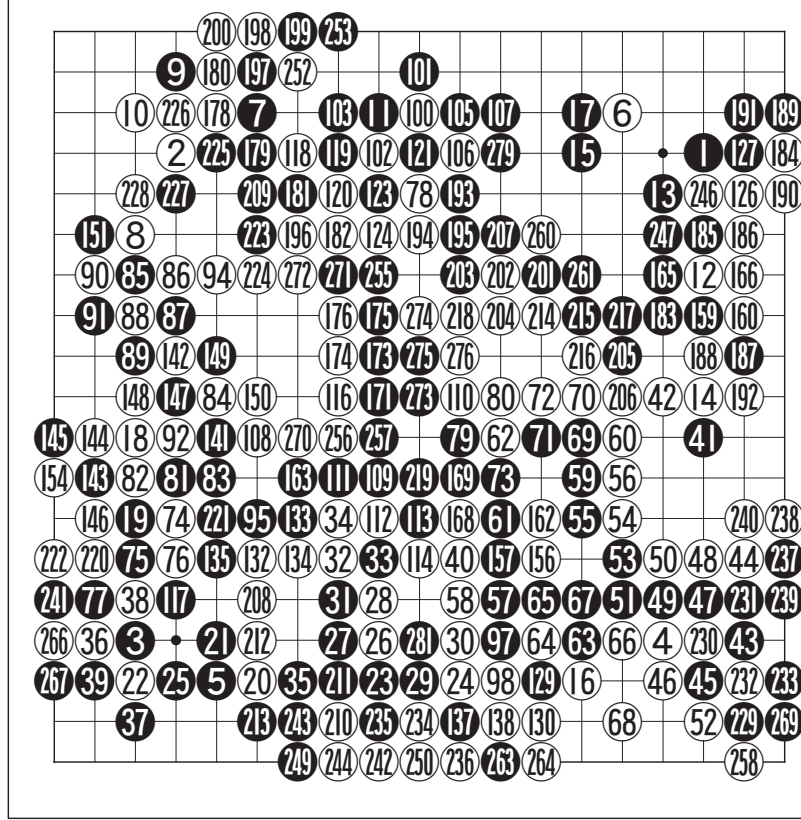
또 최근 방송에 출연, 사랑과 연애에 대한 속상

한 마음을 내비치며 눈물을 흘린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손태영(27)과 SBS TV '웃찾사'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한현민(26)이 내년 1월 27일 컴퓨터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세 살 연하 최연희씨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외 최근 출연한 영화 '무방비 도시' 예고편을 통해 상반신을 노출한 배우 손예진(25), 인터넷에 최근 모습이 공개된 팝스타 마이클 잭슨(49) 등도 눈길을 끌었다.



영화 예고편을 통해 활짝한 허리에 문신이 새겨진 뒷 모습을 공개한 손예진.



제188회 전국체전 광주 첫 은메달 총보(1~284) 일반부 결승전 백 송홍석 6단 (경기도) 흑 김남훈 7단 (광주시) 광주대표단은 금번 전국체전 바둑 대회에서 종합 4위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아깝게 은메달을 차지한 본국의 김남훈 7단 노익장을 과시하며 동메달을 획득하는 계기를 올린 심재우 6단 맹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신성건설, 챔프전 첫승 보이네 신성건설이 한국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리를 눈앞에 뒀다. 신성건설은 19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07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2연승을 거뒀다. 신성건설은 1승을 추가할 경우 1차전에서 승리한다.

굿모닝 잉글리쉬 <1060> I want to get something to eat. 뭣 좀 먹어야겠는데요. A: Are you hungry? B: A little bit.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before we go back to the hotel? A: Yes, I want to get something to eat. There is a restaurant on the next block. We can go there. B: That's okay with me.

오하오우 니혼고 <1060> キャンセル待(まち) 취소를 기다림(웨이팅) A: 夏休(なつやす)みに友達(ともだち)が来るんだ。 B: それで? A: 京都(きょうと)へ行(い)くつもりなんだけど。 B: どうしたの? A: 新幹線(しんかんせん)満席(まんせき)でキャンセル待(まち)ち。 A: 여름 방학때 친구가 온대. B: 그래서? A: 교토에 가려는데. B: 무슨 일인데? A: 신칸센이 만석이라 웨이팅 중이야.

니하오 쑹구위 <37> 这是谁的手机? 이것은 누구의 핸드폰이야? A: 这是谁的手机? zhè shì shuí de shǒujī? B: 这是爸爸的手机。 zhè shì bàba de shǒujī. A: 妈妈没有手机吗? māma méi yǒu shǒujī ma? B: 没有。 méi yǒu. A: 이것은 누구의 핸드폰이야? B: 이것은 엄마의 핸드폰이야? B: 엄마. A: 엄마는 핸드폰 없었지? B: 없어

한자 이야기 <677> 懷橘故事(회갈고사) 품을 회, 굴나무 굴, 옛 고, 일사 '회갈고사(懷橘故事)'는 글을 가슴에 품은 옛 이야기라는 뜻으로, 삼국시대 오(吳)나라 육적(陸績)의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에서, 육적회갈(陸績懷橘)이라고도 한다. 육적은 오나라 왕 손권의 참모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6세 때 구강(九江)에서 원술(袁術)을 만났다. 원술이 육적에게 곶을 먹으라고 주었더니, 육적이 먹는 동안 마는 등 시늉만 하더니 원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린 곶을 집어 품 안에 감추었다. 하직인사를 할 때 그만 곶이 땅에 대구르르 떨어졌다. 이에 원술이 "육적은 손님으로 와서 어찌하여 곶을 품에 넣었는가?" 하고 물으니, 육적이 품어왔던 "돌아가 어머니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원술이 대단히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조선의 박인로(朴仁老·1561~1642)도 이덕형의 집을 찾았을 때 흥시를 내놓으며, '조흥시가(早紅柿歌)'라는 시조를 지었다. "반중(盤中) 조흥(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염즉 하디마는 / 품어가 반기리 업습는 글로 설위하나다"라고 하여, 회갈고사처럼 유자는 아니지만 품에 품고 어버이께 갖다 드리고 싶으나 이미 돌아가셔서 서러워한다고 노래하였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